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09년도 표어

섬겨야 합니다 (갈 5:13, 전 11:1)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이 중 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영원한 말씀 (시편 119:89-96)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은 살아있다. 그것은 나에게 말씀한다. 그것은 발을 갖고 나를 따라온다. 손을 갖고 나를 붙잡는다. 성경은 고물도 새것도 아니다. 그것은 영원하다’라며 성경의 영원성을 말씀했습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1.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영원하므로 지상에서도 영원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마 5:17)고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요 10:35), 자기를 신성 모독자로 송사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본질을 언급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완전 영감, 무오성, 전적인 불멸성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요한 칼빈은 성경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경외심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에게 나온 것이지 인간적인 기원에서 나온 것이 전혀 섞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성경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어 거스틴(Augustine)을 변화시켰고, 루터(Luther)를 중생케 했으며, 웨슬리(Wesley)를 회심케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가 무너질 수 없듯 영원히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케 한다

- 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해방시킨다(92절)
- ②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한다(93절)
- ③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한다(94-95절)

89-91절에서 언급한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늘에 굳게 섰고, 그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를 해방시키며, 새롭게 하며, 또한 구원을 확신하게 합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94절), 우리가 주의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3. 반석 위에 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89-91절),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행함은 구원을 가져옵니다(92-96절). 지상에 세워진 율법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됩니다. 지상은 마침내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의 계명들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의 반석위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고 불타버릴 집을 짓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고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위에 인생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Eternal Word (Psalm 119:89-96)

The Reformer Martin Luther said regarding the etemality of the Bible, “The Bible is alive,” “It talks to me,” “It follows me with Its feet,” “It holds me with Its hands,” “The Bible is not an antique or a new thing,” “It is etemal.”

I. God’s Word is etemal

God’s word is etemal, so that we can rely on it for life. Jesus Christ teaches us clearly about the etemality of the Bible, “Do not think that I have come to abolish the law or the prophets; I have not come to abolish them but to fulfill them” (Matt.:5-17). This statement, “And the Scripture cannot be broken” (John 10:35), which was Jesus’ response to the Jewish leaders accusing him of blasphemy, refers to the Bible’s quality as etemal. That is to say, these are God’s words which are validated with complete inspiration, inerrancy, and full immortality.

John Calvin said regarding the Bible, “We respect the Bible with fear just as much as the Lord,” because the Bible originated from the Lord, and not from human beings.

The Bible is God’s book. Through its power, it transforms us. It changed St. Augustine, gave Luther a second birth, and converted Wesley. Therefore, the Bible will never perish.

2. God’s Word sets us free

- (1) God’s word liberates us (v. 92).
- (2) God’s word makes us novel (v. 93).
- (3) God’s word saves us (vv. 94-95).

As vv. 89-91 mentions, “God’s word is etemal; it stands firm in the heavens. His faithfulness continues through all generations.” His word liberates us, makes us new, and convinces us of salvation with certainty. “For I am yours” (v. 94). If it is true that we belong to Him, then God will undoubtedly save us.

3. We stand upon the rock

God’s word is etemal (vv. 89-91). If we keep His commands and put them into practice, He will by all means save us (vv. 92-96). The law constituted on earth should be discriminated from God’s word. The earth will finally disappear, but His commands will be etemal. Therefore, we must stand on the rock of His Word.

My beloved congregation!

You must not act foolishly by building a house on sand, since a house built on sand will surely fall and bum. By building our lives on the etemal rock of God’s Word, I sincerely pray that we will all become God’s faithful peopl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2009년 열린 바자

9월24일(목)-25일(금) 2일간 오전10시-오후 7시 한 가정 - 한 품목 이상 기증 / 한 품목 이상 구매토록

이웃사랑·아가페 타운 건립을 위한 2009년 열린 바자(위원장 이복규 장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열린 바자는 추석을 한 주 앞둔 9월24일(목)과 25일(금) 2일간 열리며 기간 중, 오전10시에 개장하여 오후 7시에 폐장한다.

열린 바자는 성도들이 옥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각 가정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소장품들을 출품하여 우리 주위의 탈북자와 어려운 이웃(소외된 장애인과 노인들)을 돌보는 아가페 타운 건립을 위해 물질과 시간과 맘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아름다운 자리로 서울교회 앞마당과 1층 로비, 7층과 8층 식당 그리고 한티공원에서 열린다.

바자에서 판매할 물품은 성도들의 헌물(부동산, 회원권, 상품권, 유가증권, 도자기, 미술품, 귀금속 등)과 위탁상품(농수산 특산물 및 추석 선물용품) 등으로 추석을 앞두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보려고 준비하는 성도들은 이번 바자 기간 동안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 더욱 좋다.

이번 바자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하심으로 은혜 중에 준비되고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

2009년 열린 바자 섬김위원은 다음과 같다.

- **대회장:** 이종윤 목사 · **위원장:** 이복규 장로 · **지도:** 황광 목사
- **차장:** 이동만 집사
- **교구위원장:** 노문환 장로 · **교구간사대표:** 최규초 집사

- **기획부:** 김시환/손태현 김유정 이은유
- **재정부:** 홍일성/이준호3 송인수 이안순 안분선 정경자
- **판매관리부:** 최광성/장창수 김상태 오승민 최미아 정미연 위성남 최춘수
- **섭외부:** 김영호/박광식 장찬주 권영만 이희민 박미혜
- **홍보부:** 서춘식/김민철 정지은
- **시설관리부:** 최양진/제2스데반 회원
- **주차관리부:** 김재근/제1스데반 회원
- **<점포별 담당자>**(지도/판매장/점포장/영업부장/총무부장)
 - 1점포: 한상은/김광신/강승웅/송미령 김연화
 - 2점포: 한상은/이복규/이동만/박성금
 - 3점포: 이규정/하인선/김종철/곽선자
 - 4점포: 이규정/임훈규/임광우/윤용미
 - 5점포: 박종민/성준경/이승래/장낙희
 - 6점포: 박종민/노송성/권장철/윤숙희
 - 7점포: 정수길/이영기/정동화/남영주
 - 8점포: 정수길/서문석/강낙훈/서영희
 - 9점포: 황광/이관규/윤종택/황노전
 - 10점포: 황광/홍성주/예완식/이혜선
 - 11점포: 서명철/노문환/한상준/김양숙
 - 12점포: 서명철/임상현/장덕/권희순
 - 13점포: 노현상/조정식/김정준/윤혜련
 - 14점포: 노현상/오정수/한광마/박정임
 - 15점포: 문정훈/신용식/황병석/김희순
 - 16점포: 문정훈/하영수/최규초/육희숙
 - **특판점포:** 장석남/오정수

농어촌 교회 목회자 초청

8월31일(월) 오전 11시~ 오후 3시 / 웨스트민스터 홀

우리교회는 매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벌이는 농어촌100교회돕기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올해는 59개 교회에 매월 2천 4십만원을 후원하고 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 목회자들은 홀로서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의 농어촌 교회를 지키며 전도와 말씀선포를 계속하고 있다.

전도위원회(위원장 홍성주 장로)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 하에서 농어촌교회를 지키고 있는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잠시나마 그분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8월

31일(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갖는다. 이날 우리교회는 농어촌100교회를 후원하고 있는 성도들을 함께 초청하여 이종윤 목사의 특강을 함께 듣고 점심식사를 한 후, 후원교회의 선교보고와 후원교회 목회자와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더욱 많은 성도들이 농어촌100교회운동에 참여하고 우리의 고향을 지키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재불(在佛) 입양아 서울교회 방문

오늘 - 주일예배 참석

프랑스인 가정에 입양되었던 입양아들과 부모 19명이 오늘 우리교회를 방문한다. 이들은 지난 18차 KIMCHI 신학세미나에 참여하였던 윤숙희 목사(한불기독교복음문화선교회 대표)의 주선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오늘 우리교회를 방문하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학교

를 참관하고 점심식사를 함께 한 후 교회 소개를 받게 된다.

재불 입양아들은 구제위원회(위원장 하영수 장로)가 담당하게 되고 이들에게 교회는 작은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노엘 취주악단 창단

우리교회는 문화의 기독교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노엘 취주악단을 창단한다. 노엘 취주악단은 현재 창립단원으로 17명이 확정되었으며 앞으로 예배와 전도집회, 기독교 문화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 문화의 기독교화를 이루는데 힘쓰게 된다.

단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단장:** 임훈규 장로 · **지휘:** 임법창 집사
- **지도위원:** 신용식 장로 김재근 집사
- **트럼펫:** 황익준, 정창원, 박승기 · **트롬본:** 박재웅
- **테너 색소폰:** 장윤기 · **엘토 색소폰:** 정인주
- **클라리넷:** 이영조, 이건모, 이우영, 이인, 이광, 임법창
- **혼:** 신재운 · **오보에:** 이진규 · **플루트:** 임혜원
- **드럼:** 김성태, 김성민

영어예배부 전도사 청빙 Joshua Yun 전도사



우리교회는 국제화 시대에 영어예배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파트타임으로 자원 봉사를 할 전도사 한 분을 초빙하였다.

영어예배부 전도사는 Joshua Yun 전도사로 4세때 캐나다로 이민을 하여 Univ. of British Columbia(B. Ed.)를 졸업한 후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를 마치고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대원 휴학 중이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영어교육과 강사로 있다.

2009년 8월 학습·세례식 거행

지난 8월19일 수요일 1,2부 예배시 학습·세례식이 있었다. 서울교회는 매년 짝수달(격월) 3째주 수요일 1,2부예배시에 학습·세례식을 거행하고 있다. 사전교육 및 신청절차는 새가족부 세례준비반(609호)에서 담당하고 있다.

금번 세례/입교/학습/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다.

<세례자>- 13명

권오연1 권옥련 김영수5 박성국 박여진 박찬우2 송영석 이미경7 이범주 정민교 최창건 최현철1 최효준

<입교자>- 11명

김기범3 김 휘 오호준 이 솔 이신원1 이예원 이태준1 임채언 장영태 정재욱 한동현

<학습자>- 19명

강점숙 김경표 김영민4 김재경 김지연17 김희연2 문소현 박석원1 서옥자 엄효준 윤정순 이지인 정승인 정우정3 조영제 조준성 한송이 홍금미 홍석운

<유아세례자>- 2명

안태운 임하람1

이상 총 45명

2009년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 접수 중

8월31일(월)부터 개강하는 2009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 신청서가 지난 주 주보에 삽지로 넣어졌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열린 프로그램에 성도 한사람이 한 과목 이상 신청하여 수강하기 바란다. 또한 이웃에 대한 전도의 기회로도 삼기 바란다.

접수는 사무국에서 하고 있으며 등록비는 한 과목당 10,000원이다.

37기 전도학교 개강

9월6일(주) 오후 1시30분, 906호

장로가족수련회를 마치고

“섬기겠습니다!”



김영준 장로 (당회 서기)

8월15일 우리교회 장로(원로, 은퇴, 시무, 무임) 부부 67명이 새벽기도회를 개최예배로 시작하여 아가페 타운으로 가서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섬기겠습니다’를 주제로 장로가족수련회가 시작되었다.

특강 첫째 시간은 강사 이종윤 목사님의 ‘양 무리의 분이 되라’는 제목으로 1) 지도자들과 지도를 받는 자는 겸손해야 되고 2) 양 무리의 목자가 되라는 구체적 말씀과 특

강 둘째 시간은 강사 박노철 목사님의 ‘내가 본 서울교회’라는 제목으로 서울교회는 1) 헛세드 공동체 2) 찬란한 전통 공동체 3) 비전 공동체임을 강조해주셨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두 분 목사님의 강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말씀으로 더욱 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바로서기를 다짐하게 되었다.

오전에 강의를 마친 뒤 준비해간 음식으로 그동안 공사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며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점심식사를 나누고, 당회원들과 가족들이 모두 팔을 걷어 부치고 쓸고 닦고 옮기면서 건축현장 봉사

에 합세 하였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서울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고 사랑과 구제를 실천하는 교회로 이끄시며 함께 사역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폭염에 땀이 줄줄 흘러도 모두의 얼굴은 기쁨 그 자체였다.



박노철 목사님의 서울교회에서의 첫

목회사역이 아가페타운 건설공사 현장에서 장로가족수련회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금번 장로가족수련회가 어느 수련회 때보다도 더 뜻 깊은 수련회였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가페타운 건설이 완성될 때까지 성도님들의 가정에 풍성한 복이 임하여, 바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가득하길 기도한다.



아가페 타운

봉사의 손길이 절실한 아가페 타운 현장

- 1 Day 자원봉사 이어져 -

아가페타운의 리모델링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아름다운 모습을 선보일 날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현장에서 매일 건축 전문가 80여명이 비지땀을 흘리며 공사에 전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15일(토) 장로가족수련회 시 장로들의 자원봉사를 시작으로 스테반회, 권사회, 각 전도회, 선교회, 다락방 등 자원봉사를 원하는 부서와 성도들이 많아, 이 귀한 마음을 담아 ‘아가페타운 일일 자원봉사운동’이 시작되었다.

제1권사회와 제2권사회가 아가페타운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이번 봉사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지난 8월20일(목)에는 제1권사회 회원 이부자 나옥녀 최무순 김길자 임귀순 김옥순 인천회 최봉애 권사와 박영숙 집사 하영수 장로가 8월21일(금)에는 제2권사회 회원 이영자 이성애 이안순 김찬진 이영희 최미아 김양숙 김옥순 이관모 권사와 하영수 장로가 이번 아가페 타운 일일 봉사운동의 첫 단추를 꿰었다.

앞으로 자원봉사를 원하는 성도, 부서, 기관은 사무국에 신청하기 바라며 자세한 봉사방법은 아래를 참고하기 바란다.

- * 참여대상 : 서울교회 전 성도
(부서별, 기관별 신청도 환영함)
- * 봉사시간 : 1일 4시간 (오전 11시 ~ 오후 3시)
- * 참여방법 : 교회 지원차량 탑승
(식사준비를 위하여 사전신청 요망)
- * 지원차량 운행 : 매일 오전 9시 교회 출발,
매일 오후 3시 아가페타운 출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① 중앙 총담공사 중인 본관
- ② 공사중인 기숙사동
- ③ 대강당
- ④ 청소 중 장로님들과 함께
- ⑤, ⑦ 청소중인 장로님들
- ⑥, ⑧ 청소중인 권사님들

전국시민양성

2009년 호산나학교 · 대학 여름캠프

홍석 (호산나학교 교사)

2009년 8월 11일(화) ~ 19일(수) 8박 9일간 호산나학교 · 대학 여름캠프가 있었습니다. 이번 캠프는 호산나대학 재학생 67명, 호산나학교 재학생 28명, 교사 11명 등 총 106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교생이 오대산 호텔 청소년 수련관에서 4박 5일의 일정을 함께한 후 각 학년에 따라 횡



성, 강릉, 정선, 만리포 등의 다양한 장소에서 나머지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여름 캠프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여름 레포츠와 기타 다양한 경험 활동 등을 통해 개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한편, 또래 친구들과의 활동을 통해 공동체 활동에 대한 중요성도 배우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테너 이혁재, 피아니스트 박은하 선생 부부의 찬양으로 드러진다. 이들은 안산시립합창단(지휘:박신화) 소속으로 음악 활동은 물론 성악을 통한 선교에 힘쓰고 있다. 이혁재 선생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과정에서 오라토리오 및 가곡을 전공한 서정 테너이며 안산시립합창단의 테너 수석을 맡고 있고, 반주를 맡은 박은하 선생은 안산시립합창단 상임 반주자로 활동 중이다.

오늘은 '오! 나의 소망 주께 있네 (John Stainer)' 외에 2곡으로 찬양 드린다.

신간안내 - 마태복음 II 출간



이종운 목사가 지난 2004년 10월 3일부터 4년 10개월간 계속된 '마태복음' 강해설교가 지난 주 모두 끝났다. 그동안 계속된 마태복음 강해가 마태복음 I 권에 이어 마태복음 II 권이 출간되었다. 가격은 12,000원, 서점에서 판매한다.

오늘 식사는 이종운 목사님 생신을 맞아 장로회, 스데반 1·2회 살림권사회, 권사 1·2회가 준비하며, 2부 예배 후 만나홀에서 간단한 생신 축하가 있을 예정이다.

편지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증인이십니다

2005년 11월 25일 서울교회로부터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받아 이곳 캄보디아 프놈펜에 마하나임 선교센터를 설립하여 사역해 온지 4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9기 서울교회 단기선교팀이 9박10일



동안 평소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부대인 포병부대, 상이군부대, 보병1여단, 특전여단에서 사역하므로 저의 사역지에 더욱 큰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 대치동에서 캄보디아 프놈펜 시골로 온 팀원들은 살내 온도가 32-3도를 오르내리는 방에서 선풍기 한 대 가지고 6-7명이 잤고, 거기에 치안 때문에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자야 하는 찜통의 고층, 밤새도록 공격해 오는 모기와와 전쟁 등 태어나서 처음 겪어 보는 문화 충격에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다른 교회 단기선교팀들이 호텔에서 에어컨을 켜고 침대에서 편안히 잤던 것에 비하면 우리 선교팀은 정말 너무 고생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상이군부대에서의 1박은 더 말할 나위 없었습니다. 부대내 학교 교무실에서 모기장을 치고 침낭 하나에서 지붕이 날아갈 것 같은 강풍에 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 '하나님이 서울교회에 명하여 이 땅에 세운 선교사'라는 공동은명체 의식으로 하나 된 우리는 "너희 발바닥으

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수 1:3)라는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사역 마지막 날 우리는 그 동안 마하나임 선교센터 확장을 위해 기도해 왔던 그 산지, 비전의 땅을 밟으며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님! 캄보디아, 인도차이나 5개국, 동남아 11개국을 관장하는 군선교 비전센터를 이곳에 세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2009년 7.21부터 8.14까지 사역에 참여한 단기선교팀이 자신들의 교회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마하나임 선교센터는 연례행사처럼 한 차레 태풍이 뒤덮고 지나간 듯한 적막함과 공허함이 있지만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 특히 빌 1:3-8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재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다녀간 제9기 서울교회 캄보디아 단기선교팀 28명, 노현상 지도목사님, 권혁우 단기선교팀장님과 18명의 어린이 · 이미용사역팀, 그리고 하인선 장로님과 10명의 의료사역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증인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 캄보디아에서 이재를 박병진 선교사 올림.

동정

■ 이종운 목사는 27일(목) 한국기독교100주년 이사회(조정위원회)에 참여한다.

■ 교역자 휴가 : 8월 17일~22일 - 한상은, 노현상, 박종민 목사
8월 24일~29일 - 장석남 목사 (대행: 이규정목사)
임규현 목사 (대행: 서명철목사)
Joshua Cho 목사 (대행: 노현상목사)
지혜영 전도사

■ 주간식당봉사: 당회실 (8월 23일) 제1스데반회 (8월 30일)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 요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2. 아가페타운 건설 공사 위하여
3. 갈빈길 명예도로 시행되도록
4. 공의와 질서가 회복된 사회 이루고 북한의 전쟁위협은 사라지도록

■ 교회오시는 길

